

# 첫 국정감사, 도내 국회의원 활약 관심

유성엽·조배숙, 쌀값 안정  
김광수, 순창 C형간염 오보  
전기요금·누리·삼성투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의 국감 활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김광수(국민의당, 전주갑), 정운천(새누리당, 전주을), 이용호(국민의당, 남원순창임실), 김중회(국민의당, 김제부안),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5명의 초선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지 주목된다.

또한 정동영(국민의당, 전주병),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조배숙(국민의당, 익산을), 유성엽(국민의당, 정읍고창) 등 다선 의원들도 지역 및 중앙의 이슈를 선점하며 중앙정치권에서의 중량감을 드러낼지 기대된다.

이번 국감에서 김광수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정운천 의원은 산업위원회, 정동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김광영 의원은 정부위원회, 이춘석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조배숙 의원은 산업위원회, 유성엽 의원은 교문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안행위원회, 김중회 의원은 농해수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게 된다.

일단 이번 국감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전북이 농도인지라 쌀값 안정에 대해서 누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일지 여부다.

현재 유성엽 의원과 조배숙 의원이 지난 19일 쌀값 안정을 위한 성명서를 내는 등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예상 수확량 조사 9월



**화기애애**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제7회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이해찬(오른쪽)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말 이내 완료 △공공비축 매입량을 생산량의 10%수준인 43만톤 확대 △신곡 수매 우선지급금 5만2,000원(40kg) 하회하지 않을 것 △곡곡의 쌀 사료화 물량을 일본의 50% 수준인 연 30만톤 이상으로 늘릴 것을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활동도 관심대상이다.

지난달 30일 질병관리본부는 '순창의 한 내과의원에서 C형 간염 집단 감염이 발생해 역학조사반을 내려보냈다'는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고,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역학조사 결과 C형 간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고, 순창에서는 'C형 간염 과담'이 돌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 전북도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병관리본부가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먼저 알렸다"며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공언했었다.

이밖에 산자위의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교문위원회는 누리과정 예산 등 주요 국

적한 사안을 비롯해 지역내 주요 이슈인 국토위의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한 삼성투자 무산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감은 국가적 현안과 지역 핵심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기할 수 있어 관심을 받는다. 또한 도내 의원들이 갖고 있는 정국 인식과 해법, 중점 추진 정책과 방향을 엿볼 기회라는 점에서 주목 받는다"면서 "올해 초 총선 후 첫 국감인 만큼 전북 의원들이 송곳질문과 뚜렷한 정책 대안을 내놓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올해 신규임용 법관, SKY 출신이 90%

올해 법원이 새로 임명한 법관(로스쿨 출신 제외)들 중 SKY대학 출신 비율이 90%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이 대법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는 최근 5년 동안 보다 더 심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엔 서울대 출신 비율이 44%, SKY대학 출신이 78%를 차지한데 비해, 올해엔 각각 60%, 89%의 비율을 보여 5년 새 법원의 특정대학 편중인사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 같은 추세는 경력법관 임용 현황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작년부터 시작된 로스쿨 출신 임용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로스쿨 출신의 법관들은 로스쿨 경력자 비율이 높은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춘석 의원은 "할 이상이 동일한 특성으로 구성된 불균형적인 조직은 어디서든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 내에서 '비서울대 출신은 소수인종에 가까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엘리트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깨고 그들만의 리그 속에 갇히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익선=장영원 기자

## 전희경 "표창원, 확 패버릴까" 막말 카톡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바일 메신저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막말을 자신의 비서관과 주고 받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을 샀다.

한 언론사는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진행 중인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희경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과 주고 받는 휴대전화 카톡 내용을 근접 촬영했다.

전 의원은 자신의 비서관이 카톡으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의 SNS 글을 링크해서 보내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트윗 왜 보내냐"고 면박을 줬다. 전 의원은 이어 "(표 의원) 열자리니까 확 패버리라고? 지금 주 차뿌까?"라고 자신의 비서관에 막말 카톡을 보냈다.

표 의원은 이날 SNS에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관한 기사를 소개하며 "대한민국이 어느새 마녀왕국이 되어 있는 듯"이라고 적어 박근혜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난했고 이에 전 의원이 반발한 것이다.

전 의원의 막말 메시지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자, 표 의원은 곧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제 열자리에 앉아 계신 분(전희경 의원)이 이런 생각을, 경찰 국회경비대에 신변보호 요청 해야 하나요"라고 아이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1일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에 대해 이틀째 총공세에 나섰다.

이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정비상대책 최고위'에서 "이번 사건은 권력 실세, 비선 실세 문제로 시작해서 대기업의 거액의 자금 출연까지 불투명한 재단운영, 종합적으로 볼 때 권력형 비리의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 등이 미르재단에 수백억원의 기금을 내놓은 데 대해 "권력 실세에게 내는 수백억의 돈이 자발적 모금인가"라며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이어(이번 사건) 또 참여한 것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가 피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해명하고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 2野, '미르 의혹' 이틀째 총공세

이상호 "권력형 비리 정황 드러나"

박지원 "우병우, 미르 내막 알기에 경질 못시킨다는 소문"

문제를 다루겠다. 남은 대정부질의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국민의혹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호중 정책위의장도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최순실씨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저희는 지금도 요청하고 있다"며 "여당에서 동의 안해줘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해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오영훈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미르와 K스포츠 같은 경우 출연 재산 774억 원 중 154억 원 정도만 기본재

산으로 묶어두고 620억 원을 경비처럼 사용하는 운영재산으로 분류해 버렸다"며 "620억 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 없이 어떤 행정기관이 관리 감독할 수 없고 감지도 할 수 없다. 일종의 비자금 같은 돈이 돼 버렸다"고 미르 재단 등에 출연한 기금이 박근혜 정권 차원의 비자금이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더 나아가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항간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건재한 진짜 이유가 두 재단의 탄생 내막을 깊숙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다"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안중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됐고,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간인 최순실 씨가 재단 이사장 선임에 관여했다는 게 연일 터지고 있다"며 "두 재단은 전관도 가져왔고, 이사장을 선임하는 사업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등 관계 상임위에서도 해당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치겠다"며 "민약 청와대가 발뺌하고 솔직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나 검찰고발,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권 말기 권력 비리에 대해 철저히 국민 앞에서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역시 "모든 상임위에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감 증인 채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감에서 관련 인물을 증인채택하는 데에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 황 총리 "햇볕정책, 북핵개발 시간 벌여줘"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핵능력 고도화에 대해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하며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뤄내진 못했지만, 심각한 위기상황을 관리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런 과정이 북한의 핵도발이나 핵고도화 노력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그동안 그런 정책(햇볕정책)을 추진했지만, 북한에 핵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고, 여러가지 다른 부대지원에 한 결과가 됐다"며 "핵미사일은 우리가 대화할 사항이 아니라, 막아야할 사항"이라고 햇볕정책 책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과거 북한이 6자 회담 결과, 영변 원자로 폐쇄,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 등 일부 핵시설 폐쇄를 진행했던 데 대해서도 "그런 노력들이 진정성이 있었던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

즐겁고 행복한 날~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2016 2017

# 제58차 지구대회 ·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와이즈멘의 대중화” 라는 주제로 한국와이즈멘 발전을 위한 국제와이즈멘 한국전북지구 제58차 지구대회 및 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석과 격려 바랍니다.

- 대회장 김 정 호 -

행사 안내

일시 9월 24일(토) 오전 10시

장소 전주 종합경기장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51  
Tel. 063-239-2553

10:00~10:30 접수 및 등록

10:30~11:00 입장식 및 개회식

11:00~11:30 15-16 시상식

11:30~12:00 체조 몸풀기

12:00~13:00 중식

13:00~16:00 한마음 체육대회

16:00~17:00 장기자랑 및 경품 추첨

초대가수